완주교육지원청은 18일 완주 창의예술 미래공간인 '꿈이공'과 안전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완주 창의예술 미래공간 · 안전체험관 개관

완주교육지원청, 예술 감수성 함양 ·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장 구축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난희)은 18일 완주 창의예술 미래공간인 '꿈이공'과 안전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된 창의예술 ·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플랫폼이 될 '꿈이공'은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고, 2024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을 위해 임실 119안전체험관 및 고창 삼인안전체험관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4개 교육지원청 중 최초로 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

'꿈이공[꾸미:공]'이라는 명칭은 학생 · 교원 추진위원 워크숍을 통해 '꿈을 이루는 공간, 아이들을 위한 꾸러미 공간, 아름다운 꿈을 꾸는 공간 등'의 다의적인 의미를 담아냈다.

미래교육스튜디오, 공연장, 전시홀, 창의예술 동아리방, 카페테리아, 쿠킹룸, 플레잉룸 등과 함께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영재교육원도 함께 이전 · 운영해 지역의 창의예술 · 미래교육의 메카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꿈이공 안전체험관은 응급처치교육실, 재난안전 VR체험실, 화재대피훈련실이 구축, 추후 완주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난희 교육장은 "삼례여중이 삼례중으로 통합 · 이전돼 남겨진 너른 학교터에 완주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이 생겨 기쁘다"면서 "일상의 삶이 풍부해지고 미래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이들의 예술 감수성 함양 및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장이 될 완주 창의예술 미래공간과 안전체험관 개관을 축하한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꿈이공'에서 활동하면서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가위유물 · 금속조각작품 재료 연결성 찾다

진안군 가위박물관, 금속조각가 김성수 초대전 내년 2월 4일까지 개최

진안군 가위박물관은 18일 Do Doream(두드림)을 주제로 금속조각가 김성수 초대전을 지난 15일부터 2024년 2월 4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가상공간인 '텟켓의 스튜디오 Rat-Cat's Studio'에서 꿈꾸고, 생각하며, 실행의 단계를 통해 작품 형체를 표현, 꿈을 실현한 전시 작품으로는 금속조각작품, 드로잉, 작가영상 총 12점으로 금속의 구축과 접합의 형식을 통해 작품의 표현을 구성하고, 금속을 두드려 이어 붙이는 스틸 퀼팅(Steel Quilting)과 조립과 해체를 가능케 하는 볼팅(Bolting) 기법으로 유희적 환상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성수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의 전시 경력으로 2023년 GS건설 김성수 초대전 '노스텔직 판타지', '대만-한국 국제교류전' 등의 전시와 제18회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선정작가, 3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등으로 전주와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는 조각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감상와 함께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작가의 드로잉 작품을 활용한 '나만의 배지만들기' 체험과 전시 기간 중 매주 일요일 방문객에게 작가의 드로잉이 담긴 굿즈(원형손거울 또는 자석, 1인 1개)와 어린이 방문객에게는 진안 청년몰에서 만든 수제 사탕을(재료 소진까지) 증정한다.

가위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김성수 초대전을 통해 가위유물과 금속조각 작품과의 재료적 연결성을 찾아 같은 재료 다른 느낌의 전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미술작품 전시기획으로 관람객 누구나 예술을 쉽고 즐겁게 경험하며, 자주 찾는 박물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하이트진로 협업사업 성과 공로상 수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 '전북예술로' 사업 적극 참여 수여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예술인파견지원 '전북예술로'사업에 참여한 하이트진로(주) 특판전주지점(지점장 하주완) 등 3개 기업 · 기관이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재단-기업 · 기관 협력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전국 200개 기업 · 기관 중 적극적인 사업 참여, 자체 예산 지원 등 기여도가 높은 3개 기업 ·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이에 하이트진로(주) 특판전주지점은 그룹홈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주제로 예술로 사업을 진행했다. '폭력 치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기획으로 하이트진로와 사회공헌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그룹홈 아동 ·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다. 아동 · 청소년에게 친근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테마 음악을 기반으로 음악예술의 신선한 변신, 떠들썩한 음악회의 즐거움을 목표로 기획했으며, 지난 11월 25일 그룹홈 아동 ·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연습실 대관, 각종 악기 및 음향 장비 임차와 아동 · 청소년 가족들을 위한 간식, 식사 제공 등 아낌없는 지원을 펼쳤다.

하이트진로(주) 특판전주지점에 파견된 '전북예술로' 예술인은 소영진, 강지수, 국은예, 김혜련, 이희정으로 음악과 문학의 예술인이 모여 6개월간 음악극을 위한 기획과 연습을 진행해 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사)한국박물관협회 2023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올해의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물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작년 1,700여 명에서 약 700명 증가한 약 2,428명이 참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SNS 및 언론보도 등의 홍보 전략을 구축했다.

한편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인문학적 사고를 높이기 위해 '슬기로운 의식주 생활'이라는 주제로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고 의식주 생활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 체험과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 등을 진행, 누구나 박물관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